

국민의당 ‘의총 무용론’…중재안 무산되나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표 “통합일정 늦출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반대파 14일 의총 대거 불참 우려에 중재파 연기 검토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러고 오는 14일 의원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채 하루도 못가 의총 연기를 고려 중이다.

안철수 당대표가 중재파가 제시한 ‘전 당대회 공고 후 대표직 사퇴’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총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 측 요구로 소집된 의총을 두고 반대파 측 의원 다수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총이 개최되더라도 ‘반쪽짜리 의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통합을 논하는 자리다. 최소 25~30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의총 연기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립파들이 내놓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합에 찬성하는) 전 (全)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당원의 뜻이 모였다. 원래 계획한 통합일정을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합당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기석 의원 역시 이날 오후 통화에서 “중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로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는데다 전대 소집 공고를 내건 후 직에서 물러나면 사실상 통합을 위한 전대를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총 참석 여부와 관련, 송 의원은 “의총 전에 통합을 향한 첫 단계 일정한 당무위를 진행할지, 아마 조만간 공지를 통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안 수용과는 반대로 당무위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임명 또는 전대 사회권 내지 전대 관련 당규 개정 등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안 대표가 중재안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힐 경우 이번 의총은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분당을 가속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총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중재파 측은 의총 전까지 안 대

표가 극적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면 의총에서 일종의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중재파인 박주선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안 대표를 만나 ‘현재 상황으로는 전당대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기는 불가능하다. 전대를 강행할 경우 (폭력 등) 국민들께서 보지 말아야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한 뒤 용단을 내려달라’고 제안했다”며 “안 대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이 적을 경우 의총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통합 관련 의미있는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최소 25명 내지 30명은 모여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참석 의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총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UAE 특사 의혹’ 공수 바뀐 여야

與 “‘문지마 공격’ 한국당 사과해야”…한국당 출구 고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뜨겁다. UAE 아부다비 행정정장의 방한 이후 여야 간 공수 입장이 바뀐 채 계속되고 있다.

갈등 정장이 임 실장을 만나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와 그동안 거센 공격을 했던 자유한국당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비공개 군사협정을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밝힌 것을 고리로 문제의 시발점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공격했다면서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전 장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하는 중대사안이자 헌법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

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심한 일은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역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심대한 외교 사안을 사실확인 없이 정부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무책임한 정쟁 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이 격정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당은 갈등 정장의 방한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

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 문제”라고 주장하며 “양국 특사가 서로 오간 뒤에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임 실장은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낱말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수주와 연계된 이명박 군사 분야 양해각서(MOU) 내용이 당시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른바 ‘UAE 원전게이트’ 공세의 동력은 사라졌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실제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회적참사 특조위 출범 불발

위원 못채워…활동 지연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시한을 지켜 출범하지 못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 위원 9명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 위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

했다.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공포된 만큼 이날이 위원 임명 시한이지만, 현재까지 국회사무처가 접수한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까지 시한인데 현재 국회의장 추천 인사만 들어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 9명이 정해지면 이들은 전 산조사 1소위(세월호 참사), 전산조사 2소위(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사회 소위, 피해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의 유가족 요구 등의 변수에 위원 구성이 더 늦어져 특조위 출범 지연이 장기화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특별법에 따라 시한인 이날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일단 위원 6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

홍준표 TK 찍고 충청 표심 다지기

정부 때리기로 보수층 공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8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10일 충청을 찾았다.

6·13지방선거를 겨냥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을 둘러 표심 회복에 나선데 이어 세종·충남·대전 지역으로 출격, 중원(中原) 표심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중원 표심공략에 나선 홍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며 충청권 보수층 결집에 전력을 쏟는 모습이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된 세종시장·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거칠게 비난했다.

지난 9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홍 대표는 “어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려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금껏 북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에 중점을 뒀어 하는데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말렸다”며

“지금 하는 남북회담이 북핵의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관련해서는 “체제 보장이었다면 핵 개발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는 건 체제 보장이 아니라 적화통일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남북고위급 회담, 북핵 등 안보 분야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홍 대표는 국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이들) 나라는 사회주의체제와 배급체제로 가다 보니 자유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가진 것을 나눠 먹는 그런 체제가 됐다”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제 선택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 구성

위원장에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당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위는 30명으로 구성됐다. 원내에서 추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부위원장), 박정 의원(간사), 김병관·박광운·이원욱·고용진·김병욱·김종민·박경미·박찬대·유성근·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다. 또 벤처회사 대표와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 17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	--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26(금) ~ 2.2(금)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임학원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